

불가사리 퇴치 '일석이조'

강진군이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불가사리도 퇴치하고 퇴비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진군은 불가사리의 효율적 퇴치를 위해 산란기인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집중적인 포획에 나서고 있다. 불가사리 포획작업에는 20여척의 어선이 동원된다. 4~5급 어선에 조개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어구를 달아 하루 7~8에 달하는 불가사리를 잡고 있어 마량항에는 그물망에 담긴 불가사리가 가득하다.

강진군 이달말까지 집중 포획...바다 자원 보호 kg당 500원에 전량 수매...친환경 퇴비로 지원

강진군이 불가사리와 전면에 나선 것은 불가사리가 먹어 치우는 패류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불가사리 1마리가 바지락과 꼬막, 홍합 등을 20여개 정도 거뜬히 먹어치우고 200만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수명도 5~10년으로 매우 긴 데다 다리가 잘려도 다시 생기는 끈질긴 생명력에 천적도 없어 '바다의 무법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강진군은 포획한 불가사리를 kg당 500원씩에 전량 수매한 뒤 과수원 등

필요한 농가에 퇴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 불가사리는 땅 속에 묻어두면 석회질 퇴비로 변해 과수·원예농가의 친환경 영농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번 포획 기간 동안 100여t을 수매,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어민들은 불가사리를 잡아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과수농가는 친환경 퇴비를 확보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친환경 선진 기술 현장에 접목"

영암 농민들 日 친환경농업 연수

친환경 농업 일본 연수에 참가한 영암지역 농민 26명이 지난 2일 구마모토현 아소시 가리요 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토 요시유키 씨의 쌀 재배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 현장 등 10여곳의 일본 선진농경지를 둘러보고, 1톤 1품 재배 운동의 대명사인 아소 하이랜드 등을 견학했다.



영암군 생활개선회원의 고화자(여·48)씨는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연수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이번에 보고 느낀 다양한 기술들을 현장에 직접 접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상연 비아농협 조합장 3선

이상연<사진> 비아농협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3일 비아농협 2층 회의실에서 후보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1천765명중 693표를 얻어 제 14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이명흠 장흥군수

생약초 한방전략사업 R&D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바람을 일으킬 각오입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장흥군은 읍면 순회 '현장 중심 정례조회' 운영과 '군민 대토론회' 등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장흥·회진 산단 조성 및 투자기업 유치, 장흥읍 중앙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러브데이'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회진 산단조성 전국 최초 무산 김양식 선포

또 광주~장흥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착수했으며 생약초 한방전략사업 R&D 구축, 정남진 권역의 3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장흥한우 유통망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헛개나무와 비파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무산(無産) 김양식'을 선포해 정경 장흥군의 이미지를 높였다. 오는 30일에는

공원 조성계획 등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 민선 4기 후반기에는 국가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현장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 탐진강 제 2구간 자연형 하천정화활동 시행, 은퇴자 타운 조성, 장흥농공단지 건설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정남진 장흥 한우특구 지정, 장흥청태전 복원화 사업도 역점 추진해 지역 특산물의 고품질 고소득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토피 치료 재활 복합단지 조성, 900여원을 들인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장흥해당산단 내 골프장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명흠 군수는 "농어촌 버스공영체 실시와 2010년 통합의학 박물관 개회 준비 등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영희기자 kykim@

지역 재발전 나선 장성 삼서면 직원들

매주 학습동아리...잘못 알려진 지명 바로잡아

장성군 삼서면사무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잊혀진 '지역 역사'를 되찾고 있다. 삼서면사무소는 1월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GG (Green Glass) 클럽'을 매주 열고 있다. GG클럽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서면처럼 '늘 푸르게 생각하자'는 의도로 붙여진 이름이다. 안영갑 면장과 직원 등 16명은

매주 금요일 오후 '삼서 가치 재발견'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직원이 수양저수지가 합동저수지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국토정보지리원에 건의한 결과 전국 오류자료 일제 정지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에 영광군으로 표기돼 있는 태정산 위치를 삼서면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야간근무 귀가 경찰관 과로사

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흥성진(45)경사가 지난 5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오후 1시 30분께 숨졌다. 흥 경사는 지난 4일 개장한 해남 송호해수욕장 야간 순찰 업무를 맡아 5일 오전 9시까지 근무했으며, 지난 1주일간 야간 근무를 2차례 반복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진표 기자lucky@

함평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결의대회

함평군은 8일 관내 요식업소와 식육업소,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 '함평천지 한우'의 명성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

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원산지 표시제 관련 교육에 이어 결의대회, 시가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품종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 쌍옥농공단지 개발 본격화

농촌공-화순군 실시협약 체결 한국농촌공사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나선다. 한국농촌공사 이사회는 8일 화순군도곡면 쌍옥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의결했다. 14만3천146㎡(4만3천300평) 규모의 쌍옥 농공단지는 127억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장

봉조)는 지난 4월 화순군과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화순 쌍옥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촌공사가 공동 시공하게 돼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쌍옥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효과 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0억원과 함께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시원한 물살 가르느 여수고 요트팀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여수고등학교 요트팀이 소호동 요트경기장에서 물살을 가르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1999년 창단한 여수고등학교 요트팀은 지난 3월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 1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25300-9999